

살아있는 건물의 따뜻함

The Warmth of a Breathing Architecture

한만원 / 환경건축
by Han Man-Won



동그라미 유치원 내부

건물은 사용되기 위해 지어진다. 건축가는 그 건물이 사용되는 모습을 추론하면서 설계를 진행시키게 된다. 그 사용에 대한 설정이 빛나갔을 때 건물은 서서히 변형을 겪게 되거나 또 그 물리적 수명이 다하기전에 건축적 수명을 다하고 사라져 버리기도 된다. 우리가 하나의 건축물을 주목하고 또 비평하게 되는 것은 대개는 그 건물이 완공된 직후이다. 사용자의 손길이 가기 전인 이때가 소위 건축가의 의도가 때문지 않고 잘 드러나고 있을 때이며 혹자는 이때에 서둘러 사진을 찍어 발표하기도 한다. 그러나 건축물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적어도 몇 년의 사용기간을 거친 후 그곳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들의 손길이 닿은 건축물을 보면서야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종상의 동그라미 유치원은 이미 1994년에 완공되어 사용되고 있는 건물이며 이 건물을 지금에 다시 돌아본다는 것은 이러한 점에서 또 다른 의미를 지닌다. 실제 건축가 이종상과 이곳을 방문했을 때 우리는 그 건물이 아무런 변형 없이 매우 자연스럽게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또한 학부모와 원생들의 자랑이자 사랑받는 장소인 것을 쉽게 느낄 수 있었다. 건축물의 형태와 공간을 논하기에 앞서 그것은 사용자들의 손길이 구석구석 스며들어있는 따뜻하게 살아있는 건물이었다.

도시성의 문제

대지는 사당동 지역의 전형적 특성을 이루는 2~3층의 연립주택 및 다가구들로 가득 채워진 동네 속의 8m 와 6m 도로로 이루어진 네거리의 모서리에 위치한다. 주변의 대지들의 형상을 보면 이 대지 역시 주거를 위한 택지로서 분할되었던 2개의 필지를 합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문제는 120평 정도의 좁은 대지에 1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유치원을 지어야한다는 것과 또한 모서리 대지가 가지는 잠재력을 수용하면서 주변의 도시적 상황에 건축가가 어떻게 대응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건축가는 이를 대지의 긴 형상을 따르는 직사각형과 가각에 대응하는 긴 타원형의 두 기하학적 요소를

오버랩시키는 매우 명쾌한 설정으로서 접근하였다. 그리고 이 두 요소가 겹쳐지는 부분에서 공간의 상호 관입이나 수직 동선에 따른 공간변화를 통하여 4층에 이르는 유치원 전체의 내부 공간을 다양하게 구성해 내었다. 대지의 형상에 따른 기하학적 개념의 설정은 직사각형과 타원이 그대로 Extrude 되어 두 개의 매스가 상호 관입되는 매우 단순한 형태가 생성되었다. 여기에 발코니, 외부계단, 창 등의 요소들을 변형적으로 작용시켜 건축가는 단순한 개념설정속에서도 작고 또 매우 변화가 풍부한 자유로운 건물의 이미지들을 만들어내었다. 대지안의 모든 공간의 흐름은 모서리에 설정된 원통으로부터 비롯되어 직사각형 대지의 방향을 따라 진행된다. 이 원통은 좁은 대지위에 세워진 이 유치원에서의 모든 공간적인 흐름, 1층의 출입구, 3층까지 그 안을 돌면서 올라가는 계단, 그리고 4층의 옥상공간까지 다양한 공간적 전개를 수용하며 그 모습을 외부에서 예감하게한다. 또한 그것은 좁고 긴 대지의 형상에도 불구하고 도시 내에서의 모서리 대지가 가지는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강하게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백색의 드라이비트로 마감된 이와같은 원통형 매스의 설정은 붉은벽돌이나 기와로 가득찬 주변에서 의외적인 성격을 부여하며 상대적으로 지역적 상징성마저도 지니게 되며, 동그라미 유치원이라는 이름에서 보여지듯이 유치원의 중요한 이미지를 담당한다. 이 유치원의 독특한 이미지는 이러한 주변과의 대비에서 생기는 비일상성과 그것이 가지는 지역적 상징성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보이며, 유치원 원장님의 정성어린 교육과 함께 학부모들에게 좋은 호응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유치원 : 어린이들의 공간

유치원은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이다. 유치원을 설계할 때 건축가가 부딪히게 되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어린이적'이라는 것에 대한 해석이다. 어린이들이 가지는 미적 감각은 과연 어른들의 그것과 다른 것일까. '동심의 세계'란 과

연 알록달록한 원색과 동화 속의 성과 같은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일까. 어린이들은 어른과는 다른 스케일감을 지니며 이는 기능적인 것들 뿐아니라 공간의 크기나 높이에 대해서도 다른 접근을 필요로 한다. 또한 유치원 자체의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전혀 다른 내부적 구성이 요구되기도 하며 결국 어떤 보편적인 해법보다도 각 유치원의 특색에 따른 매우 개별적인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는 경향이 있기도 하다. 이종상의 이에대한 대답은 유치원 전체를 어린이들을 위한 하나의 놀이터로 설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우선 이 건물에서는 그것이 유치원이라는 아무런 직접적인 아이덴티티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것은 매우 비유형적인 건물이지만 일단 그것이 유치원임을 알게되면 손쉽게 그 당위성을 받아들여지게 되며, 나아가서 그 다양한 모습들 뒤에 숨어있을 내부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한다. 내부에서 역시 어떤 직접적인 인용에 의한 장식들은 일체 배제되었고, 천정과 바닥의 단순한 설정 속에서 창과 문, 그리고 교구들이 가지는 색채만이 공간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내부공간의 중요한 특색은 원통 내에서의 여러 가지 변형을 통하여 다양하게 전개되는 공간의 변화와 3층까지의 열려진 공간을 채우고 있는 부드러운 빛의 흐름이다. 입구를 들어서자마자 발견하게 되는 이 공간은 이 유치원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격을 상징해 낸다. 그러나 외부에서의 진입에 따른 공간의 변화가 너무 급격하게 이루어져 있어 진입과정에서의 시퀀스나 원충공간의 설정 등이 아쉽게 느껴지기도 한다. 또한 직사각형과 타원의 중첩을 통한 공간적 변형은 구석구석 놀랍게 많은 작은 공간들을 형성하고 있으며 교실들 역시 각각 다른 모습들을 지니고 있다. 이와같은 다양한

공간의 설정은 유치원 내부를 돌아다니며 매 위치마다 새로운 공간체험을 가능하게 하며 그것이 바로 건물전체를 하나의 놀이터로서, 혹은 놀이기구로서 인식하도록 한다.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의 스케일 역시 매우 섬세하게 고려되어 있어서 확장실 위에 다락방을 만들어 2개층으로 나누어서 쓰고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내부를 움직이는 좁은 골목길 같은 통로들 역시 매우 아담하게 고려되어 있다.

옥상공간은 멀지않은 곳에 위치한 관악산과의 시각적인 연결을 통해 길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매우 수려하고 햇빛이 따듯한 공간을 제공한다. 좁은 대지 때문에 불가능했을 지상에서의 놀이공간이 이곳에 설정이 되었고, 건축가는 높은 담장을 이용하여 이곳을 아늑하고 아기자기한 공간으로 만들었다. 옥상의 중정을 통하여 접근되는 건축주의 개인공간 역시 이러한 공간적 특색을 충분히 수용하고 있다.

동그라미 유치원은 바로 그 이름이 시사하듯이 매우 기하학적인 작업에 의해 구성되었으면서도 '어린이적'인 분위기와 그 재미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것은 이종상의 최근 작업에서 보듯이 기하학적으로 매우 절제되고 세련된 것은 아니지만, 건축이 그 외부적인 조형이나 어떤 현학적인 개념 전개보다도 그 내부공간을 통하여 그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일치하고 또 그 존재의 이유를 충족시키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이 유치원이 우리에게 소중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건축적인 담론보다도 그 건물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랑하고 또 자부하는 살아있는 건물의 따듯한 생명력일 것이다.

The purpose of architecture is to be used. The architect designs with its presumed use in his head. When this assumption proves to be incorrect, the architecture goes through extensive deformation, or worse, becomes abandoned even before its physical deterioration. It is quite interesting that most of the attention or criticism on a work of architecture is given right after its completion. This phase is usually acknowledged as a state of purity, when the architect's intentions are most clearly presented. Some people rush to preserve the uncontaminated on photographs. I, however, must assert that the real evaluation of an architecture can only be made after at least a few years of use.

A criticism on Lee Jong-Sang's Round Kindergarten, in use since 1994, is meaningful in this respect. A visit to the kindergarten with the architect has ensured me that the work was being used as intended, and that it has become a proud and loving place among the kids and their parents. Even before any investigation into forms and spaces, I apparently noticed that it was a breathing, warm architecture where the touches of its users could be felt in every inch.

The Problem of Urbanism

The site of the Round Kindergarten is at a typical Sadang-dong region; in the midst of low-rise multi housings, at

the corner of a 8m- and 6m-road cross. It is likely that the site is a consolidation of two housing lots. The challenge for the architect was to build a kindergarten for 120 children into a small site of 360 m², and fully develop the potentials of a cornered land in an urban context. The architect approached the problem by overlapping two clear geometrical forms; a rectangle that follows the shape of the site, and an oval that corresponds to the intersection. The junction of two elements features the mutual interpenetration and variations of spaces with vertical circulation that consists the whole 4 stories of the kindergarten. The application of two geometrical forms to the shape of the site is directly extruded to the facade, where the intrusion is clearly visible. The attachment of balconies, stairways, and windows to the form of a rather simple concept adds to the richness of the building's overall image. All circulations within starts from the oval at the corner towards the direction of the rectangular site. The oval is literally the container of every spatial circulation in this small site; the entrance on the first floor, the stairway that leads up to the third floor, and the roof garden on the fourth floor. It also projects this organization to the outside. The architect fully understood and developed, within the urban situation, the use of a corner and overcomes the long and narrow form of the given site. The exterior finishing, contrary to the red bricks and traditional roof tiles of the neighbors, is done by white drivit, that ironically plays a symbolic role at the region, and emphasizes the very name of the kindergarten. The unique image of this building stems from the extraordinary contradiction of forms and its symbolic effect. It is, along with the heartfelt education of the principal, the main reason behind the kindergarten's popularity among the attending children's parents.

The Kindergarten: A Space for Children

The kindergarten is a children's space. The biggest issue that the architect faces in designing this facility is to interpret what it is to be a child. Are the senses of the children different from those of the adults? Does the juvenile world exist, as in bedtime stories, only in the castle with primary colors? It is clearly apparent that their sense of scale differs from those of the grown-ups, and this applies in approaching not only the functional aspects but the volume and height of each spaces. Internal compositions often vary in response to the unique educational program of each kindergarten, so the usual

outcome of a kindergarten design results in an individual, not universal solution. Architect Lee Jong-Sang's answer to this issue was to assume the whole kindergarten as a big playground. It should be noted that the building itself does not present any direct sign of its functional identity. It is rather a work totally against any archetypes, but you can somehow easily confirm, as you experience, that it is a kindergarten. It catalyzes the curiosity to seek, behind the diverse volumes, the indoor spaces, where the decorations are also deprived of any direct figurative associations. In the humble presence of simple floors and ceilings, the windows, the doors and the color of furnitures dominate the space. The variations on the spaces in the oval and the flow of a warm light that fills the void space extending to the third floor are the main characters of the kindergarten. The latter area, which welcomes the visitor as he enters the building, presents its overall character. The shift of outdoor space to this entrance with height is so sudden, that a more gradual sequence or a buffer zone would have been preferred. The interpenetration of the oval and the rectangle creates, to one's surprise, small spaces with great multiformity. Along with the diversity in the shaping of classrooms, this enables the user, as he proceeds through the kindergarten, to enjoy the discovery of new spaces. Thus, the whole building can be recognized as one big playground.

The arrangement of scale is subtly controlled for its infant users. The height of the restroom is divided into 2, where the upper level is used as another space, and the street-like hallways share the coziness of a reduced scale. The roof garden is visually connected to the adjacent Mount Kwanak, and creates a grand and warm atmosphere which cannot be found on the approaching road. As the area of the site denied the luxury of any gardens on the ground level, it had to be lifted to the roof, and the use of high fences has made the space secure and comfortable. The private area of the owner, which is connected through this roof garden, shares its features.

The Round Kindergarten, as its name suggests, is composed of hard geometrical forms. It nevertheless delivers a childlike and enjoyable environment. It is not as geometrical and refined as Lee's recent works, but it proves that the *raison d'être* of architecture lies not in the pedantry analysis or the form of the envelope, but in the indoor spaces that lives and breathes with its users. The kindergarten certainly does, and its importance is found in the love and affection the teacher, the children and their parents have on this work.